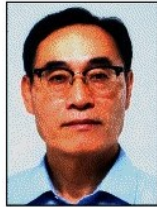


| 경일춘추

이름보다 오래 남는 것



김강섭
한국농어촌공사 차장·건축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글 쓰기를 떠올린다. 이는 자기 생각과 시간을 종이 위에 담아 세상에 펼쳐놓는 일이다. 책은 누군가의 마음 한편에 조용히 머무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장을 넘기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더없는 기쁨이다. 문장 사이를 걸다가 문득 멈추고, 마음에 남는 한 줄을 오래 바라보는 순간, 짧은 머뭇거림이 하루의 온도를 바꾼다. 책은 그렇게 말없이 다가와 가슴에 잔잔히 스며든다.

줄저 ‘건축, 인간과 함께 숨쉬다’ (2025년)를 비롯해 네 권의 책이 나왔다.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길고도 더디다. 한 문장을 붙잡고 하루를, 한 권을 위해 몇 해를 보내기도 한다. 간절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문장이 제자리를 찾는다.

오늘도 문장 앞에 앉는다. 수필을 쓰고 또 고친다.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 남아 있을 때면,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독서 인구는 줄고 출판의 길은 좁아진다. 사람들은 책보다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둔다. 손안의 화면은 빠르고 편리하며 쉬운 즐거움을 준다. 그 사이에서 책은 점점 멀어진다. 그럼에도 가끔 낯선 이로부터 내 책을 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맞느냐고 묻는 목소리를 듣는다. 혹은 “책 잘 읽었습니다”와 같은 한 줄은 생각보다 오래 내 곁에 머문다. 이런 반응과 공감이 다시 책상 앞으로 이끈다.

독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는 같은 문장을 읽고 같은 자리에 함께한다. 소리 없는 연결이 마음을 움직인다. 어쩌면 나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하루에 잠시 머물기 위해, 마음 한쪽에 작은 온기를 남기기 위해 쓴다.

책의 힘은 크지 않을지라도,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한 줄의 문장이 지친 마음을 잠깐 내려놓게 한다. 그 정도라면 충분하다. 누군가 읽어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명확한 믿음이 있기에 문장은 이어진다.

이제는 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 어디선가 한 사람이 책장을 넘기다 잠시 멈추고, 웃고, 위로를 얻는다면 감사의 선물이다. 이 순간이야말로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흔적이다. 문장과 마주하는 나의 시간은 다시 흐른다. 보이지 않는 독자를 향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한 사람의 마음에 닿기 위해….